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녀성들



평양출판사

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녀성들



주체111(2022)년 7월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녀성의 대명사로 일러왔다.

하지만 비단 그것만으로는 우리 녀성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다는 알수 없다.

바로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미풍속에,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속에, 불같은 애국심과 순결한 량심속에 우리 녀성들의 참모습이 한껏 비껴있다.

총잡은 남편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전호가의 꽃으로 피여난 군인가족들, 첨단돌파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녀성과학자들, 최전연섬초소와 산골군의 학교들에 자원진출한 녀성교원들,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린 녀성체육인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한 자리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녀성들은 그 얼마나 많은것인가.

이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훌륭하게 내세우는 밑거름이 되는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보람도 행복도 값높은 삶도 있다는 불같은 지향이 이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조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산으로, 바다로, 심심산골과 외진 섬초소로 주저없이 달려나가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조국의 숨결에 활력을 더해주는 우리 녀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미덥고 돋보이는것인가.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 우리 조국의 번영과 창창한 미래를 위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녀성들.

오늘도 조국과 인민의 값높은 부름속에, 사회와 집단의 존경과 사랑속에 한생을 아름답게 빛내여가고있는 우리 녀성들을 조국은 사랑하며 높이 자랑한다.

수십년세월을 도로관리공으로

-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장 조길녀 -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장 조길녀, 그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수십여명의 가두녀성들과 함께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로 탄원하여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동을 자아냈던 주인공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수도의 청년들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는것은 례사로운 일이였지만 나이가 적지 않은 가정주부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수십명씩이나 도로관리원으로 자진하여 나선 례는 없었다.

그때 조길녀녀성의 나이는 41살이였다.

결심은 섰으나 그 결심 하나로 끝까지 갈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도로관리원인 그에게 있어서 어느 하루도 휴식이란 있을수 없었다.

새벽일찍부터 도로관리를 해야 하였고 겨울이면 맵짠 추위속에서 몇시간동안 눈치기로 밤을 새우는적이 많다나니 육체적피로가 겹쳤다.



그는 20여년전 수십여명의 녀성들과 함께 도로관리공으로 탄원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자기의 일터를 성실하게 지켜왔다.

그는 당과 국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에 새 보금자리를 폈다.







설상가상으로 몇달이 지나고 한두해가 지나자 자신들의 결심을 후회하며 주저하는 반원들까지 하나둘 생기자 마음이 나약해지기까지 했다.

그때마다 작업반장인 그는 한생을 도로관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려는 자신들의 소박한 결의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되새기며 반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이 흘렀다.

작업반원들의 힘으로 번듯하게 작업반실도 일떠세웠고 자체로 창안제작한 태양빛도로청소기를 비롯한 여러 기공구들은 전시회마다에서 순위권에 들었으며 10여권의 창의고안증서도 받았다.

이 나날 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고 26호모범기대작업반의 영예도 지니였으며 많은 작업반원들이 조선로동당원으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크나큰 영광과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그뿐아니라 남들이 선뜻 가기 저어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그것도 수십년동안 작업반을 이끌며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온 그를 나라에서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다.

비록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 특출한 위훈은 세우지 않았지만 자기 초소를 한생토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지켜가는데서 행복과 보람을 찾는 그였기에 누구도 쉽게 갈수 없는 길을 오늘까지 걸어온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다듬어지고 깨끗해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넘친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소박하게 이야기하는 그였기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자욱을 수도의 거리에 묵묵히 새겨갈수 있었다.

의상미술분야의 쟁쟁한 실력가

- 평양미술대학 강좌장 공훈예술가 부교수 김옥경 -

국가산업미술전시회때마다 특색있는 의상미술도안으로 산업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40대 초엽의 한 녀성이 있다.

산업미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치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정열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안다고 한다.

동료들은 그가 언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며 휴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결같이 말하군 한다.

학생들의 교수준비로 바쁜 속에서도 침식을 잊어가며 나라의 의상미술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고 노력하는 김옥경강좌장이다.

그도 가정부인으로서 집에서도 손길을 기다리는 일감들이 있을텐데 휴식을 좀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대답은 언제나 한마디였다.

《우리 인민들이 문명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좌표였고 야심찬 목표였다.

그는 산업미술인재들을 키워내는 후비육성사업과 병행하여 우리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고 우리의 미감과 정서에 맞는 의상미술도안창작을 위하여 순간도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한건의 도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수백여개의 도안을 창작하였고 기발한 착상을 위해 그가 찾아다닌 단위만 해도 셀수 없이 많다.

그도 녀성이고 안해이며 어머니였다.

세대주에게 가정일의 모든 부담을 맡겨놓고 어쩌다 한번씩 집에 들어오군 하는 그에게 쏟아지는 두 자식의 철없는 투정을 받아주기가 여간만 벅차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보다 먼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려는 불같은 애국의 마음과 깨끗한 량심은 그에게 진할줄 모르는 열정과 사랑을 안겨주었다.



김옥경선생이 창작완성한 도안들의 일부



비행승무안내원복장

문수물놀이장봉사복도안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봉사복도안

소학교학생교복도안

고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

대학생교복도안

그 나날에 그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의례원복도안과 미림승마구락부 겨울승마복도안, 미림항공구락부복장도안, 마식령호텔봉사원복도안 등 500여점의 도안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하였다.

뿐만아니라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전시회에 민족적특성과 시대적미감을 훌륭히 구현한 조선옷도안과 많은 직업복도안들을 출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특등과 1등을 쟁취하였으며 당선된 작품은 수십여건이나 된다.

이제는 교단에 선지도 어언 20여년세월.

자기의 작품들마다에 어리는 우리 인민들의 밝은 모습과 랑만적인 생활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며 더 훌륭할 래일을 위해 끝없이 달려가는 그의 열정과 사색, 노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김옥경선생이 집필한 도서, 화첩들의 일부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공훈방직공 리명순 -

소중한 꿈을 안고 사는 공훈방직공

그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한 녀성, 직장앞의 속보판에 붙은 자기의 사진조차 얼굴을 붉히며 쳐다보기 저어하는 평범한 녀성이다.

남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방직기대와 함께 보내고있다는것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입는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가, 내가 만든 천으로 옷을 만들어보았으면 하는 소박한 꿈을 간직했던 그는 20여년전 직포공의 대렬에 들어섰다.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기대앞에 서는 순간부터 그에게 있어서 기대는 자신의 전부였다.

처음 맡은 기대는 불과 몇대, 순회길도 몇m밖에 안되였다.

낯선 기대와 친숙해지기 위해 남보다 이악하게 노력했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아꼈다.

허나 참기 어려웠던것은 눈앞의 난관과 시련에 동요하며 기대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나약해지는 자신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꿈을 버릴수 없었다.

조국이 맡겨준 기대, 살점처럼 여겨온 기대를 떠날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한대라도 더 많은 기대를 맡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쳤다.

휴식도 잠도 가정까지도…

해가 갈수록 기대수와 순회길이 늘어났다.

모자라는 시간을 위해 순회길을 한초한초 앞당겼고 기대가 멈춰서는 시간마저 아까와 기계수리기술까지도 전부 습득했다.





딸이 다 크도록 운동회에 한번도 오지 못한 어머니를 원망할 때도, 남편에게 따끈한 밥상 한번 차려주지 못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자신의 사랑과 정, 땀과 열정을 깡그리 순회길에 묻었다.

그 나날 공장에 대한, 기대에 대한 애착을 안고 다기대공으로, 공훈방직공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였다.

그들속에는 조용히 눈굽을 적시는 평범한 직포공인 리명순녀성도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를 공로자로 높이 내세웠으며 오늘은 아름다운 보통강반에 그림처럼 일떠선 경루동의 희한한 새집도 안겨주었다.

저저마마 축하의 인사와 꽃다발을 안겨주는 친지들에게 그는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라며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직업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량심으로 무수히 찍어온 그의 애국의 순회길, 그 길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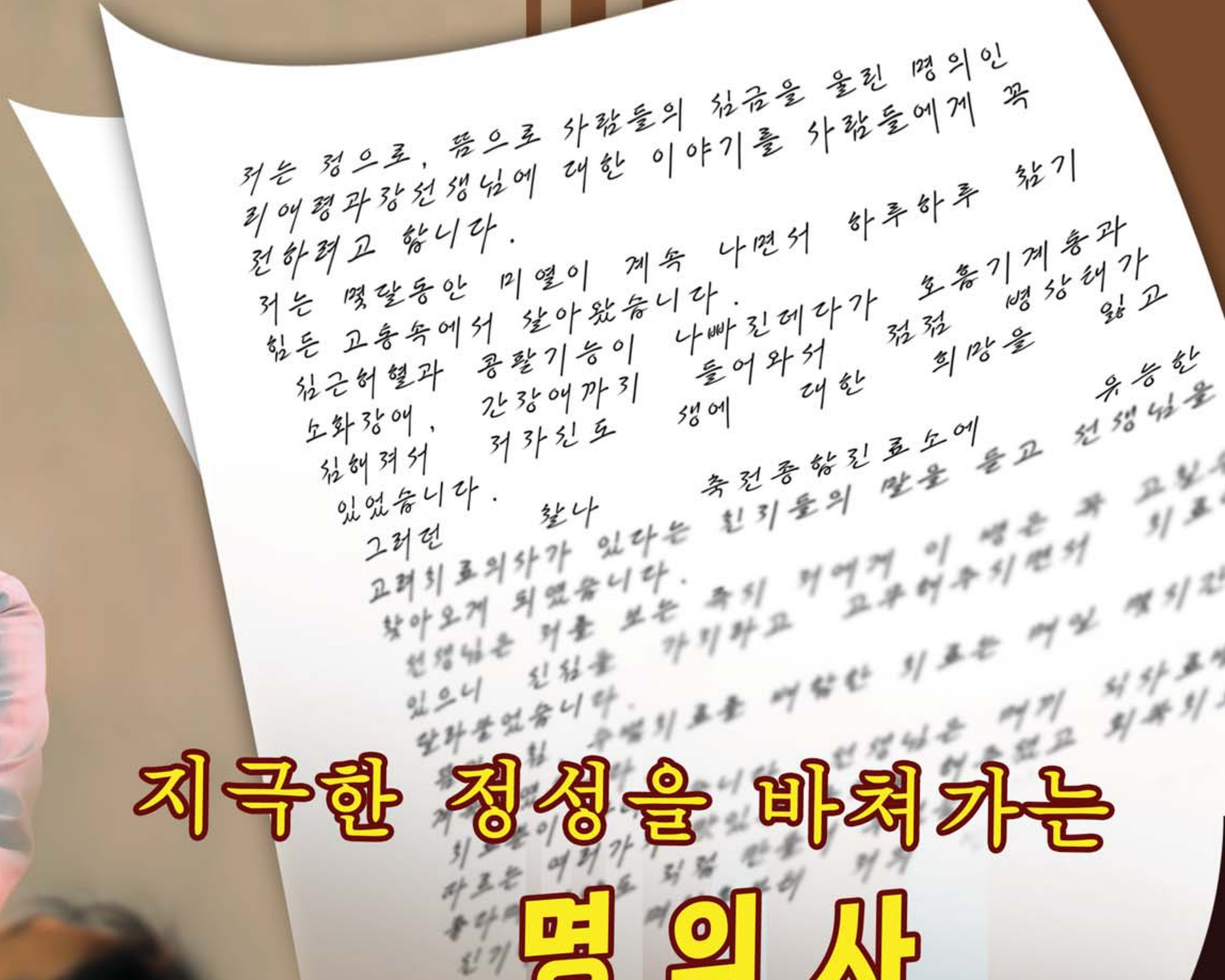


그는 20여년간 다기대운동의 봉화를 추켜들고 지구둘레 10바퀴를 돌고도 남을 순회길을 달려 기적적인 신기록을 세운 공훈방직공이다.









지극한 정성을 바쳐가는 명의사

– 만경대구역 축전종합진료소 과장 리애령 –

그러던 참나 축전종합진료소에 유능한 고려치료의사가 있다는 친지들의 말을 듣고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는 즉시 저에게 이 병은 꼭 고칠수 있으니 신심을 가지라고 고무해주시면서 치료에 달라붙었습니다.

뜸과 침, 수법치료를 배합한 치료는 매일 몇시간씩 계속되였습니다.

치료뿐이 아니였습니다. 선생님은 매끼 식사요법에 따르는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고 회복치료에 좋다며 보약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후부터 저의 병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입맛이 돌아서고 온몸의 부종이 가라앉기 시작했으며 기력이 회복되여가는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20여일간의 치료끝에 저는 병을 완전히 털고 생의 활력을 되찾게 되였습니다.

그 기간에 기울인 선생님의 극진한 사랑과 남모르는 정성을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간대도 정녕 잊을수가 없습니다.

고마운 리애령과장선생님을 자랑합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 3동 4반 송계욱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7-0017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유산이름 뜸치료술

유산보호 및 소유기관(개인포함) 만경대구역축전종합진료소 (리애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23호로 등록되였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주체105(2016)년 10월 24일

리애령과장이 받은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치료를 받고 완쾌된 사람들이 남긴 글

리애령선생은 30여년동안 허혈성 심장질병, 소화기질병, 고혈압증,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고있는 수백명의 환자들을 완쾌시켰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유네스코강습에 참가한 리애령과장







한생을 무궤도전차와 함께

-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공훈자동차운전사 허명금 -

나의 운행길, 언제나 곧바로만 가리라



평양역－련못동로선을 달리는 무궤도전차 181호에 오르면 중년의 녀성운전사를 볼수 있다.

그는 아직은 동트기 전, 사람들이 단꿈을 꾸고있는 시각마다 새벽별을 떠이고 출근길에 오르군 한다.

무궤도전차의 정비에서 미진된 점이 없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내부까지 구석구석 훑어보고나서야 마음을 놓으며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는 그가 바로 수십여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운행길을 달려온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공훈자동차운전사인 허명금녀성이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무궤도전차운전사로 시작한 그는 꽃나이처녀시절부터 전차의 정상운행과 무사고주행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오랜 운전사들과 수리공들에게서 하나하나 알심있게 배우기도 하였고 때로는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서적들을 탐독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일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운전대를 놓고 떠나가는이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아픈 눈물도 흘렸다.

허나 그는 정든 초소, 자기의 전차, 인민의 봉사자라는 긍지, 이 모든것을 버리고 개인의 안락만을 위해 살수 없었다.

전차의 부속품과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교대운전사인 남편과 함께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쳤다.

따끈한 밥 한번 제대로 해먹인적 없고 장난감 하나 사준적 없는 아들이 투정질할 때면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네가 크면 이 엄마의 심정을 리해할때가 있을게다.》라고 달래며 또다시 운전대를 잡군 하였다.

자기 일터와 자기 직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피타는 노력으로 그의 전차는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적으로 진행하는 애차판정에서 항상 앞자리를 양보한적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꿈과 같은 행운이 차례질줄이야…



2015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믿음과 기대속에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그에게 몸소 투표해주시였으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던것이다.

애국의 한길만을 걸어온 그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었다.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경축대회에 그를 대표로 불러주었다.

언제나 한모습으로 운행길우에 애국의 마음을 수놓아가는 그에게 오늘은 또다시 아름다운 보통강반의 호화주택을 안겨주었다.

오늘도 그는 이렇게 말하군 한다.

나의 운행길, 그것은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이 인민들에게 가닿는 길이다. 한생토록 곧바로 그 길만을 이어가리라.







공장의 보배로 떠받들리우는 과학자

- 평양건재공장 공업기술연구소 소장 조명옥 -



조명옥소장은 처녀시절부터 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위훈을 시겨온 성실한 기술자이다.

사회와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애국자들가운데는 녀성의 몸으로 누구나 쉽게 걸을수 없는 멀고 험한 과학탐구의 길에 한생을 묻어가는 조명옥 평양건재공장 공업기술연구소 소장도 있다.

공장이 착공되던 2002년부터 건축설계와 부문별생산공정의 설계를 선행하여 보장한 그는 공장이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공장의 타일과 위생자기생산에서 디젤유에 의존하던 소성공정을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에 의한 가스공급공정으로 바꿀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수입원료와 대등한 도자기원료를 찾기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 가보지 않은데가 없었다.

언제인가는 어느한 나라에 위생자기형타를 의뢰하였는데 엄청난 가격을 부르자 민족적자존심을 걸고 기어이 자체로 만들어낼것을 결심하고 근 2년간의 고심참담한 사색과 수십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끝내 위생자기생산용CNC가공반을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어떤 형태의 위생자기도 마음대로 생산할수 있고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원가를 10분의 1로 줄일수 있는 수지어미형타도 우리 식으로 개발하였다.

그는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공장의 관리운영을 기술적으로 담보하고 떠메고나갈수 있는 기술력량을 믿음직하게 꾸리는데 많은 품을 들여 20, 30대의 쟁쟁한 설계원, 기술자들을 육성하였으며 공장의 종업원모두를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훌륭히 키워냈다.

그가 지닌 실력, 그것은 참다운 애국이 없이는 지닐수 없는것이다.

실력의 높이이자 애국의 높이, 이것을 신조로 삼고있는 그였기에 그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부강조국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주는 과학자로 불리울수 있었다.

하기에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인 그를 《우리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 《우리 소장》으로 존경하고 떠받들고있다.

그는 오늘도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해나가고있다.









- 위생자기생산용CNC가공반 제작
- 원료자재의 국산화 실현
- 공장의 현대화 실현
- 공장 통합생산체계 성과적으로 수행
- 20대, 30대 설계원, 기술자들 육성





자나깨나 국기만을 생각하는 영웅체육인

- 체육성 청소년체육학교 교원 안금애 -

조국의 명예를 한껏 걸머지고 자기의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체육인들, 그들이 바라는 최대의 꿈과 목표는 오직 하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는것이다.

허나 우승의 금메달은 누구에게나 선뜻 차례지지 않는다.

안금애, 그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조국의 명예를 떨친 체육영웅이다.

평범한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나 남달리 유술에 대한 소중한 꿈을 간직한 그의 소질을 찾아내여 꽃피워준것은 고마운 조국이였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는 완강한 투지와 배짱을 안고 20여년간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았다.

그 나날 그는 국제경기들에서 많은 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올림픽금메달이였다.

그 금메달은 그에게 있어서 명예이기 전에 조국에 바치는 량심이고 의무였다.

하기에 그는 체육선수로서의 은퇴나이가 다된 자기에게 가정을 이룰것을 바라는 부모님들과 친지들의 권고를 다 뿌리치고 올림픽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한 출발선에 나섰다.

2012년 7월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그는 끝내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우에 섰을 때 그는 끝끝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그것은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찾아주고 성장의 걸음걸음 그토록 정을 기울여준 어머니당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였다.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화시기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사람들은 우리 체육인들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로력영웅으로, 공훈체육인으로 영광의 단상우에 높이 올려세워주시였다.

올림픽금메달을 위한 그의 꿈과 목표, 그것은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았다.

나라의 유술발전을 위해 뿌리가 되고 주추돌이 되여 우리의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리라,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이다.

오늘도 그는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있다.

안금애선수의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결승경기장면














체육성
청소년체육학교

맹수를 길들이는 녀인

- 중앙동물원 맹수작업반 공훈사양공 김순옥 -

60여년세월 맹수를 길들여온 녀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작을사한 키에 말도 사근사근하게 하는 녀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앙동물원 맹수사를 여러 차례 찾아주시여 그를 만나주시고 맹수를 관리하다 해를 입을수 있으므로 먹이를 줄 때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철창이 든든한가도 몸소 확인해보시며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돌려주시였으며 맹수사사양관리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가 수십여년간을 맹수관리공으로 일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으며 국가적인 중요대회와 행사들에 빠짐없이 불러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거듭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자들도 어려워하는 맹수사에서 수십년세월 묵묵히 일해오고있는 그의 소행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을 모신 시계와 사랑의 금반지를 안겨주시고 그를 로력영웅, 공훈사양공으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인민의 기쁨과 이어진 일터에서 한생을 인민의 웃음과 랑만을 위해 바쳐온 한 평범한 동물사양공이 걸어온 생의 흔적은 이렇게 말해주고있다.

한 인간이 누릴수 있는 행복의 권리, 그것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할 때에만 누릴수 있는것이라고.



그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학창시절을 마치는 그길로 중앙동물원의 관리공으로 자원하였다.

애어린 처녀를 보고 앵무사사양관리공으로 추천하였지만 이왕이면 제일 사나운 맹수들을 길들이고싶다고 했다는 그였다.

정작 맹수사관리공으로 자원해나서기는 했지만 기나긴 세월 변함없이 그 결심을 지켜간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온종일 사나운 맹수들과 씨름해야 하는 육체적피로는 말할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젖이 모자라는 새끼들과 영문모르게 앓는 맹수들을 볼 때가 제일 안타까왔고 그래서 친자식마냥 품에 안고 며칠밤을 꼬박 지새운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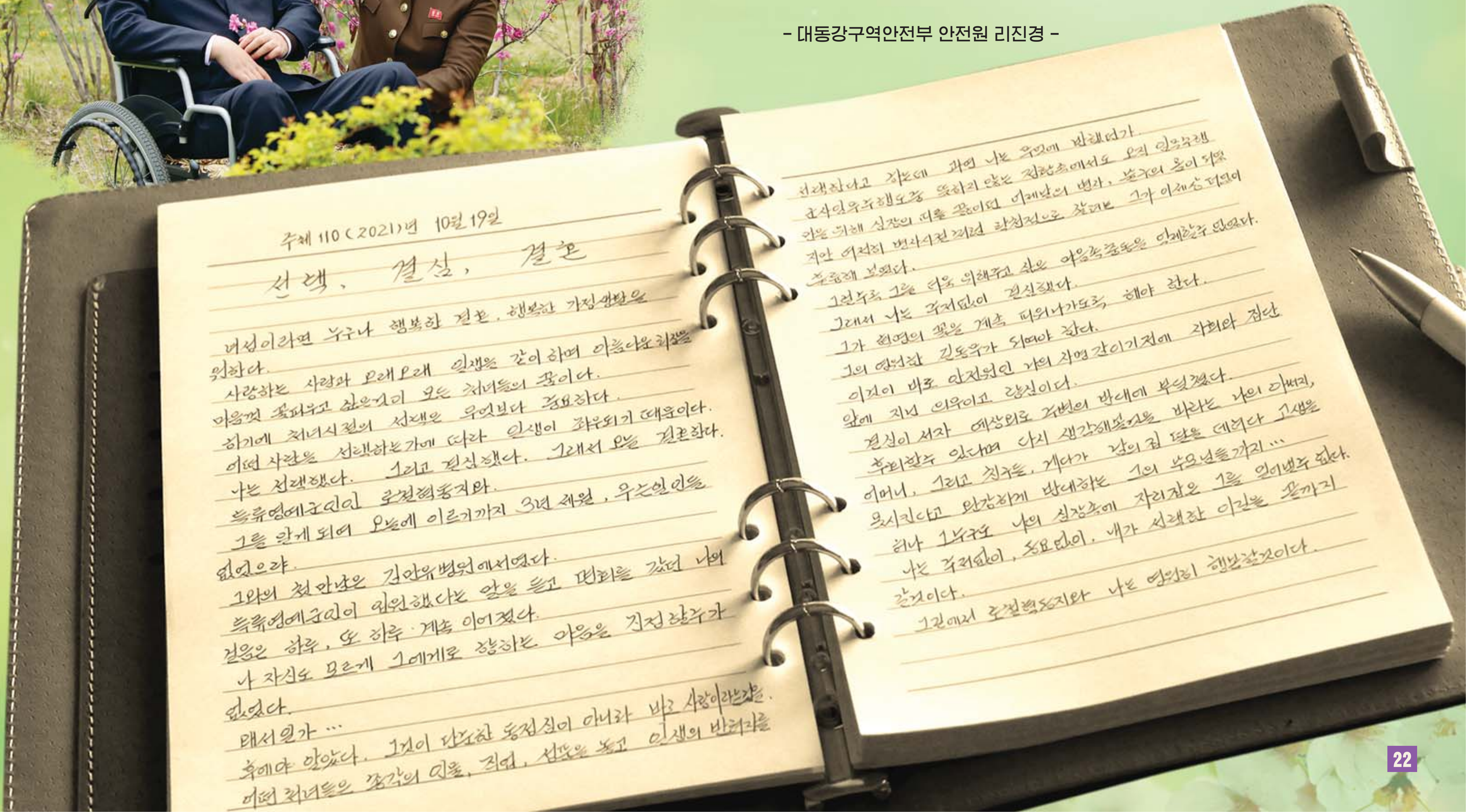
늘 맹수사에 몸을 담그고 사는 그에게 자식들이 투정을 부릴 때에도, 년로보장나이도 다되였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손자, 손녀들이나 돌보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라고 친지들이 권할 때에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맹수들을 두고 떠날수 없었다.

가까운 혈육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의 마음속고충을 귀중히 헤아려준것은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이였다.



특류영예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

- 대동강구역안전부 안전원 리진경 -



주체 110(2021)년 10월 19일

선택, 결심, 결혼

녀성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인생을 같이하며 아름다운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싶은것이 모든 처녀들의 꿈이다.

하기에 처녀시절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한다. 특류영예군인인 로철혁동지와.

그를 알게 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 세월, 우여곡절인들 없었으랴.

그와의 첫 만남은 김만유병원에서였다. 특류영예군인이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면회를 갔던 나의 걸음은 하루, 또 하루 계속 이어졌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왜서일가 …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것을 후에야 알았다.

어떤 처녀들은 총각의 외모, 직업, 전망을 놓고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반했던가.

군사임무수행도중 뜻하지 않은 정황속에서도 오직 임무수행만을 위해 심장의 피를 끓이던 어제날의 병사, 불구의 몸이 되였지만 여전히 병사시절 그대로 락천적으로 살려는 그가 이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해 보였다.

그럴수록 그를 더욱 위해주고 싶은 마음과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결심했다.

그가 희열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안전원인 나의 사명이기전에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의무이고 량심이다.

결심이 서자 예상외로 주변의 반대에 부딪쳤다. 후회할수 있다며 다시 생각해보라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게다가 남의 집 딸을 데려다 고생을 못시킨다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의 부모님들까지…

허나 그 누구도 나의 심장속에 자리잡은 그를 밀어낼수 없다.

나는 주저없이, 동요없이, 내가 선택한 이길을 끝까지 갈것이다.

그길에서 로철혁동지와 나는 영원히 행복할것이다.





나는 주저없이, 동요없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갈것이다.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가정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가 비여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걸어온 위훈의 길에 수놓을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나라의 한자리가 비여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가요 《녀성은 꽃이라네》중에서)



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녀성들

편 집　　허 혁

촬 영　　김남철, 로남철

글　　권지혜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1(2022)년 7월 28일

발 행　　주체111(2022)년 7월 30일

ㄱ-1547ㄷ